

아베 일본총리의 미국양원 연설을 생각한다

호사카유지(세동대 교수, 정치학)

4월29일 미국의회 양원에서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연설을 하게 되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 총리가 미국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61년 당시의 이케다 하야토 일본총리가 미국 하원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아베총리의 경우 상하양원에서 연설을 하므로 그런 의미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베총리의 미국의회연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는 총리가 된 이후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고 말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

이와 반대로 일본정부도 참여한 가운데 채택된 유엔의 ‘침략의 정의’가 있다. 이 정의에 의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여 무력으로 타국에 침입하는 모든 행위를 ‘침략’이라 했다. 아베정권은 ‘침략행위’이란 입장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일본의 아시아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1945년까지 침략전쟁 완수를 위한 장치였고 현재 A급 전범 14명을 신으로 모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적극 추진하면서 매년 야스쿠니신사의 봄과 가을의 여대제 때는 총리대신의 이름으로 공물을 바쳐 왔고 총리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2013년12월26일에는 스스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때 미국정부는 일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실망’이라는 외교용어를 쓰면서 높은 수준의 유감을 표명했다.

아베총리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촉구한 사상가이자 메이지 일본정부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고 공언한다. 요시다 쇼인은 아베총리의 고향 야마구치현의 사상가였고 에도막부 말에 당시 초슈(長州)라고 불린 야마구치현에서 막부타도의 운동을 전개해 메이지 정부를 출범시키는 근본을 만든 인물이다. 요시다 쇼인은 특히 조선을 아시아 진출의 발판으로 인식하여 조선침략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베총리는 매년 그의 고향 야마구치현에 있는 요시다 쇼인 신사를 참배한다. 아베총리의 고향 야마구치현, 즉 초슈(長州)는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선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지방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었다. 일본의 헌정 의회를 창설하고 총리를 몇 번이나 지낸 이토 히로부미도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만년에 한국통감이 되었고 한국침략의 선봉에 섰다. 조선의 명성 황후를 시해한 미우라 고로 조선공사는 요시다 쇼인의 손제자였고 일본에서 서양식 군대를 창설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요시다 쇼인이 직접 가르친 제자였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한국 침략론자였다.

아베신조(安倍晋三)의 이름의 신(晋)자는 요시다 쇼인의 제1제자로 잘 알려진 기마대 창설자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의 신(晋)자를 딴 이름이다. 그리고 다카스기 신사쿠는 초슈 내에서 야스쿠니신사의 모체가 된 초혼장을 16군데나 만들어서 전사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거행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쿄의 야스쿠니신사는 초슈 사람들이 에도막부를 타도하여 메이지 정부를 수립한 후 고향에 있는 초혼장을 도쿄에 옮겼고 야스쿠니신사로 이름을 개편했다. 아베총리가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처럼 야스쿠니신사를 국가적으로 운영

하여 특히 한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베신조총리는 또한 그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A급전범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A급전범 14명을 만들어낸 극동국제군사재판 소위 도쿄 재판자체가 연합국에 의한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사상을 갖고 있다. 도쿄재판 때 7명의 판사들 중 단 한 명만 14명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 판사는 인도의 펄(Radhabinod Pal)판사였다. 그러므로 아베총리는 그 사실로 펄판사를 높이 평가했고 인도에 있는 펄판사의 손자를 방문해 펄판사의 ‘공로’를 기리기까지 했다.

이런 행동은 그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1조는 일본이 도쿄재판의 여러 판결을 수용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도쿄재판의 여러 판결을 수용한다는 전제로 1952년 4월28일 일본은 독립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아베총리는 그런 국제적 약속까지 지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야스쿠니신사는 A급전범을 전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신으로 모셔놓고 있다. 그곳에 아베총리가 참배하여 매년 총리대신의 명의로 공물을 비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아베총리의 마음속에는 A급전범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만큼 그는 태평양전쟁자체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의 우익진영은 태평양전쟁이란 결코 침략전쟁이 아니었고 백인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려고 한 해방전쟁이었다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 아베총리도 그런 시각을 갖는 대표적 우익인사인 셈이다.

일본의 우익진영과 아베총리는 일본이 침략국가, 혹은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것은 실제로 그랬다기보다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

다. 그들에 있어서 일본은 운이 사납게 2차대전에서 패배한 것이고 혹시 당시 일본이 승자가 되었더라면 입장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있어 일본의 최대 잘못은 미국과 전쟁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니 반대로 앞으로는 미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을 씻어내야 한다는 그릇된 신념을 아베총리는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60년 이상 지켜져 온 헌법해석을 마음대로 바꿔서 미국과 같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을 보통국가로 정의해 군대를 부활시키는 일은 그의 최대이자 최종목표다. 자위대를 군대로 다시 개편하려는 노선은 그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비원이기도 했다.

미국은 이런 아베총리에 대해 미국의회양원에서의 연설을 허용했다.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미군 대신 세계의 여러 지역에 주둔시키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눈을 감고 아베총리의 미국의회 연설을 허용한다면 역사적 과오를 범할 우려가 크다. 즉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내세워 특히 한국을 희생시킨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얻게 될 일본이 더욱 한국을 상대로 멋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기타 서양 여러 나라들에게는 신사라 할지라도 한국에게는 안 좋은 말을 써가면서 건달처럼 구는 현재 아베 정권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더욱 한국에 대한 말의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말의 폭력이 실제 행동에도 옮겨져 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이 수많은 자료로 명백한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외교청서나 사회과 교과서 등에 계속

기재하기 시작했다. 상식이 있는 국가라면 왜 명백한 것을 외교수단으로 동원하는가. 본인자체가 독도전공자이므로 일본정부의 광기를 허용하기 어렵다. 일본 내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혐한 시위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재일 한국인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과 같은 의회연설 등을 결정할 때 미국만의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 오판한 일본우익들이 더욱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일본 편을 든다면 적어도 이웃나라들에 고통을 주는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과 그릇된 행동만큼은 최대한 단속해야 하지 않겠는가.